

신성장동력 발굴 '시동'

익산 미래발전 선도할 대형프로젝트 발굴 초점

익산시가 지역의 미래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5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분과별로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문가 포럼은 △산업경제분과 △농업농촌분과 △지역개발·SOC분과 △문화관광·복지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바이오 분야 전문가 회의의 △(가칭) 익산시 R&D 기관협의체 회의는 별도 트랙으로 운영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지방 출연기관, 대학교수 등 50여 명의 전문가그룹과 30여 개 부서가 참여한다. 발굴된 아이템의 구체화와 사업화

등을 위해 포럼위원 구성 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구성했다. 특히 시는 분과별 Kick-off 회의 단계부터 전문가그룹과 사업부서가 함께 참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익산시 미래발전을 선도할 대형프로젝트와 차별화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통해 오는 2024년 이후 국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20여 건 이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발굴된 아이템은 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 탐마루 봄 수박이 지난 14일 출하를 시작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

익산 명품 탐마루 봄 수박 본격 '출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 탐마루 봄 수박이 지난 14일 출하를 시작했다. 익산 탐마루 수박은 금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등 수박 재배환경에 최적인 망성·육안·용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또한 참박 접목 기법 등 고품질 재배 기술력을 갖고 있어 맛과 향이 좋으며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한해 2기작으로 재배돼 지난 겨울 정식한 1기작 수박이 4월 말부터 소비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시장 경쟁력이 높다. 2기작은 7월 중순에 출하된다. 시는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통한 조직·규모화로 약 90ha의 시설하우스

생산단지에서 110호 농가가 연간 3,500톤을 재배·수확하고 있으며 공동수확, 선별, 상품화 과정을 거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전국각지에 공급된다. 시는 통합마케팅(익산탐마루조공)을 통해 540여 매출 목표로 판로 다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탐마루 수박은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비중 약 13%로 올해 약 6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으로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배움의 열정으로 군산 곳곳에 생동감을

동네문화카페, 평생교육위상 높아

군산시는 민선7기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수요 민족과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루 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5인 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학습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사와 매니저를 파견하는 평생학습사업으로 민선7기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신규 운영을 시작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움이 동네 구석구석 펼쳐지는 동네문화카페는 학습자에게는 배움의 즐거움 강사와 학습매니저에게는 일하는 즐거움 학습장 제공 사업주에게는 사용료를 지원해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 '1석 4조' 사업이다.



군산시는 민선7기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수요 민족과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루 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 또는 지역의 비영리 시설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학습자만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제공하며 평생학습 일상화

와 학습동아리 문화를 조성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전국 188개의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사업자 모집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탕이 거세진다. 군산시는 마을 단위 주민이 함께 모여(학습공동체) 평생학습에 의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소득향상·환경 및 일

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마을자원·문화유산·관광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주제학습을 위한 교육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선정 규모는 8개소 내외, 지원규모는 개소당 7백만원 이내로(군산시 직접 집행)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시 교육지원과에 이메일(sky@krcad@korea.kr)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집행금액 조정과 함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교육 및 주제 학습에 필요한 강사,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함은 물론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학습매니저 파견 또는 주민 학습공동체의 구성원 중 마을활동가를 선발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6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긍정 만족도는 81%로 높았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 간 평생학습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뤄져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차유성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차유성 전북도의회 익산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가 6.1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 익산시 북부시장 건너편 백옥당 2층 선거사무실에서 오는 16일 오후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힘찬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특히 차 후보는 “지난 1905년 전북대인 의병봉기인 면암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의병활동한 차광현 군자금 금500근 헌납하고 의병을 봉기하였던 증손자 이면서 1987년 7월 전 김대중대통령 동계동계 정지입문한 동지로서 활동이력과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과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 후보는 “시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통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귀담아들으며 민생을 시정, 도정, 국정에 반영하는 열린 일꾼으로 분골쇄신할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차 후보는 “익산의 화해와 협력 시대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열어가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익산시, 교통체계 개선 최종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새로운 도시 교통의 방향과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해 15일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사업을 반영한 중장기 교통개선대책에서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단기 교통개선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20년 및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여건변화 대응방안 수립과 이에 부합하는 부문별 개선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정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교통체계 변화대응방안 ▲최적교통망 수립 ▲교통안전체계 개선 ▲개인형 이동수단 도입방안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군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5월 한 달간 중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동일하고, 중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이번 이벤트는 중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선물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판매하는 방식을 모두 해제하고 4개 금융기관 74개 전체지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가정의 달 이벤트로 중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